

취업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태도와 주부의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A Preliminary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Employed Women's Labor Forces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and its Determinants Focused on the Family's Attitudes*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미

호남대학교 생활과학과

조교수 윤숙현

여주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Yeon Kim

Consumer Science &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Dept. of Life Science Ho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ook-Hyun Yoon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Sung-Hee Kim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선행연구의 고찰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ome ways to utilize effectively the labor forces of employed wo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amily's attitudes toward the work of married women and the effects of determinants inclu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household related variables, work related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variables and family's attitudes toward the work of married women on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LF(1995)'s National data were used and one Logistic model and one Catmod model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amily's attitudes toward the work of married women among the employed women was highly positive and the one toward the unemployment among the unemployed women was positive too. The variable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husbands' attitudes and the parents(parents in law)' attitudes toward the work of married women were different. The family's attitudes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Also,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household and some difficulties to find proper house keepers or child care types wer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산업부문, 예를 들어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미혼 여성은 중요한 노동력원이었다. 이들은 출산, 육아 등의 여성 특유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수적으로 노동력 공급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남성노동력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산업에서의 요구가 컸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산업구조의 중심이 3차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거의 제한없이 공급되었던 미혼여성의 노동공급 범위가 여러 산업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3D노동 등에서 제 1차 노동력, 즉 남성 노동력의 부족, 남녀 차별 내지 고용차별 폐지법 등의 시행과 여성직종 개발과 시간제 직업의 증가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1970년 36.5%에서 80년 38.2%, 85년 41.9%, 90년 47.0%, 95년 48.3%으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 중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1980년 40.0%, 90년 47.2%, 95년 47.6%, 96년 48.5%으로 미혼 여성의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1980년 34.4%에서 96년 13.6%로 감소하였고, 교육수준별로 보면 1980년대 여성노동인구 중 중졸이하가 67.6%이었으나 1994년에는 중졸이하가 37.5%, 전문대졸 이상이 18.3%여서 고연령화와 고학력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85, 1990, 1997).

이와 같은 여성노동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Oppenheimer, 1988). 또한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이용은 노동력수급을 안정시키고 보다 높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미혼이나 결혼 초기에 참가율이 높다가 중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취업 기혼여성은 직업기회를 얻거나 가정내 역할이 감소하는 생활주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의 성격을 갖고 있다(어수봉, 1991; 이선, 윤석천, 1991). 더욱이 지난 한 해 IMF 시대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이 노동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공급이 유동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노동력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은 커리어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국가로는 노동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김영옥, 1993; 김태홍, 1993; 문숙재 등, 1996; 신영수, 1991)은 이러한 여성의 특징적인 경제 활동이 결혼, 출산, 양육 및 가사 등의 여성적 책임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 기혼 여성이 사회적 인식이나 근로조건 및 이중역할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주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므로써 각 여성의 개인 및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은 남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태도 뿐 아니라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가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사회적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주부의 취업과 관련된 특징을 이해하게 해주므로 비취업 기혼 여성의 잠재적 노동력을 활용하며 취업 기혼여성의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노동력 수요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Goldin(1983), Reskin과 Hartman(1986) 등의 학자들은 고용된 직종, 직업부문, 그리고 노조의 유무 등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차이가 있음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적 요인 자체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나아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사회문화적 태도라는 것이다. 즉 이들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이 현저히 높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전일제 취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남성의 경제활동 특징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 성차별, 낮은 임금과 제한된 승진 기회 등의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며, 특히 기혼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매우 영향력있는 사회적 요인이다.

물론 여성취업에 대한 남녀의 태도를 조사한 통계청자료(1995, 1996)에서와 같이 기혼여성의 역할은 가정내 역할이 우선적이라는 성별분업적 태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육아나 가사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기혼 여성 스스로도 육아, 가사 등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요구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이 남편이나 시부모님 등의 허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보이는 경향(이용만, 강태욱,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2)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인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이 주부의 취업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일차적으로 주부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선 가정상황에 좌우되기 쉬운데,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적 접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노동공급의 측면과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두었다.

경제학적 접근에서 노동공급이론은 주로 개인의

노동-여가선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Mincer가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의 경우 노동, 여가 뿐 아니라 가사노동시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가계를 중심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관심을 두어왔다.

이들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사노동과 취업 간에 제한된 시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결정과정을 포함한다. 이 때 여성은 두 가지 임금, 즉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market wage)에 대한 합리적 비교를 통해 참여-비참여를 결정한다. 시장임금은 한 여성이 일을 할 경우에 그 여성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장가치, 즉 그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하며, 유보임금은 가사일을 돌보는 데 쓰는 그 여성의 가정에서의 시간의 효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가사노동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Becker, 1975; Heckman, 1974).

이러한 두 종류의 임금은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과 가치 뿐 아니라 노동력의 경제적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가계생산이론이 체계화되면서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 기술 등의 인적 자본과 함께 출산 및 자녀 양육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밝히려는 계량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hrenberg & Smith, 1994; Killingsworth & Heckman, 1986).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이 기혼 여성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의 고찰

일반적으로 남성의 취업은 당연시되지만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여성의 취업에 대해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역할과 책임은 가정이라는 관념이 보편적이다. 이것은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그 대신 가정일과 직장일을 모두 잘 수행

해야 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성별분업적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통계청, 1995, 1996).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 일차적으로 남편이나 시댁, 친정부모 등의 중요타자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여성개발원(1992)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3,840명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취업기혼 여성 남편의 67.2%가 기혼여성의 취업을 찬성하였고 6.5%만이 반대하고 있어 취업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남편의 찬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는 부인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직종을 갖고 있거나 가정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였다. 반면 남편이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가사 및 육아의 소홀(40.3%), 자녀교육문제(19.9%), 남편의 보수적 태도(14.0%)였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남편의 교육수준, 연령 및 가계의 경제적 상태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또 다른 연구(1996)에서도 남편이 여성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였고 재취업율도 낮게 나타나 남편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미국도 현재보다는 과거에 여성의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SooKon Kim, 1971)가 있다. 또한 Yohalem(198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0-44세 연령층의 백인 기혼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기간이 거의 4배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동기 역시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기혼 여성이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이근희, 조명기, 1991; Veronica & Barbara, 1981), 가장 주된 취업 이유는 경제적 문제이다. 많은 경우 기혼 여성은 저소득 가

계의 생계유지나 혹은 맞벌이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여성이 벌어들이는 임금의 가계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Eggebeen & Hawkins, 1990; Vickery, 1979).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상황은 기혼 여성의 취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져왔다. 일찌기 Douglas(1919)나 Long(1958)은 남편의 소득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부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계소득, 타가족원의 소득, 남편의 직업지위 등이 대리지표로서 연구되어져 왔다(김영옥, 1993에서 재인용; Ehrenberg & Smith, 1994; Lloyd, 1982).

한편 가계에 있어서 자녀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양승주, 1993; 이용만, 강태욱, 1997; Felmllee, 1982; Gronau, 1973; Nakamura, 1991). 즉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녀는 제약요인으로서 자녀를 돌볼 적절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거나 그에 대한 상당한 비용으로 인해 정규직을 구하더라도 시간제를 선호하거나 비취업으로 머물게 된다. 이것은 자녀수가 많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양과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의 합리적 비교에 있어서 흔히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의 효과가 논의된다.

기혼 여성의 연령은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생활주기 단계와 관계가 있어서 보통 결혼, 출산 연령을 전후로 경제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뿐만 아니라 연령은 인간적 성숙 및 직업에서의 경험 축적 등의 인적 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혼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이 안정적이며,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여 시장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Osterman, 1980).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교육수준은 미국의 경우 기혼 여성의 취업과 정적 관계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Ehrenberg & Smith, 1994; Heckman, 1974; Waite, 1980).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높은 임금의 성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으로 높은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노미혜, 김영옥, 1993; 양승주,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는 고학력 기혼 여성의 높은 유보임금을 충족시킬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준다.

이상과 같이 기혼 여성의 취업은 인적 자본의 영향이 큰 남성의 경우와 달리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나 그밖에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태도를 밝히고 이러한 가족태도 뿐 아니라 개인, 가정, 취업관련 변수가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우선 주부의 취업지위에 따라 기혼 여성 가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태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후 이러한 가족태도 및 개인, 가정 그리고 취업관련변수가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다.

여기에서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는 남편의 태도와 시부모의 태도, 그리고 친정부모의 태도를 찬성과 반대의 이항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취업과 비취업의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러한 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가정된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개인관련 변수는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정관련 요인은 가족형태, 자녀수, 취학전 자녀유무, 가계소

득 및 남편의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취업관련 변수에는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가정/직장 양립 불가 이유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취업기혼여성 가계는 취업이유와 가정/직장 양립 불가 이유를, 비취업기혼여성 가계는 취업하려는 이유와 직장을 가질 경우 가정/직장 양립 어려움의 이유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1995)에서 실시된 여성인력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실태조

사의 원자료로서 이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근로자 270명, 비취업여성 818명, 남성근로자 589명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가구주 및 가구원의 노동공급유형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의 태도를 분석하고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 기혼여성 125명과 비취업 기혼여성 757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주부 가계의 일반적 특징,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의 태도 및 주부의 취업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취업여부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태도	주부의 취업상태 1=취업 0=비취업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 친정부모의 태도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1=찬성 0=반대		
	취업에 대한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태도 1=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찬성 2=시부모나 친정부모 중 한쪽만 찬성 3=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반대		
개인관련 변수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세 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이상 1=확대가족 0=핵가족		
가정관련 변수 가족형태 자녀 수 취학전 자녀유무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동거하는 자녀수(명) 1=취학전 자녀 있음 0=없음 가계총소득(만원/월) 1=전문직/고위임원직 2=기술공/사무직 3=판매직/단순노무직 4=기타		
취업관련 변수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주부가 획득하는 소득(만원/월) 1=경제적 이유(생계책임, 생활곤란, 경제적여유 등) 0=기타(사람들의만남, 사회적인정, 가사노동이 싫음, 능력발휘, 유익한여가, 시가살이어려움 등)		
가정/직장 양립 불가이유 (어려운 이유)	1=육아담당자 및 파출부를 구하기 힘들어서 2=육아, 파출부 임금 등 부대비용의 부담 3=신체적 부담, 가족돌보기의 소홀 등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취업 지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의 태도 중 남편의 태도는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태도는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찬성하는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중 한쪽만 찬성하는 경우, 그리고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반대하는 경우의 다항변수이므로 Catmod 분석을 적용하였다. 한편 주부의 취업지위도 취업과 비취업의 이항변수이므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수행하였다. Logistic 분석, Catmod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주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취업지위에 따라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에 의해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취업주부의 연령은 평균 38.2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44.80%, 초대졸 이상 28.80%, 중졸 26.40%로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비취업주부의 연령은 평균 37.7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5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중졸과 초대졸 이상은 비슷한 비율이었다.

취업주부는 핵가족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동거하는 자녀수는 1.64명,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는 24.80%였다. 비취업주부 역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동거 자녀수도 비슷하였으나,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가 40.69%로 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주부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210만원으로 비취업주부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인 189만원보다 약간 많았

다. 취업주부 가계의 남편직업은 준전문가 및 사무직이 가장 많아 34.26%였으며, 그 다음은 고위임원직 및 전문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자의 순이었으나 비취업주부 가계의 남편직업은 고위임원직 및 전문가가 31.65%로 가장 많았으며, 준전문가 및 사무직, 서비스·판매·단순노무자, 기타의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취업주부 가계와 비취업주부 가계의 개인관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동거자녀수, 취학전 자녀유무, 월평균 가계소득 등과 같은 가정관련변수는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직업관련 변수를 취업지위에 따라 살펴 보면, 취업주부가 취업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74.40%, 비경제적 이유가 25.60%이었던 반면, 비취업주부가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25.89%, 비경제적 이유는 74.1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경제적 취업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가 36.80%였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의 어려움, 생계에 대한 책임의 순이었고, 비경제적 이유로는 능력발휘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유익한 여가를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의 순이었다. 비취업주부가 취업하려는 경제적 이유에 있어서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절반수준인 47.92%이었지만, 다음은 능력발휘, 유익한 여가를 얻기 위해서 등과 같은 비경제적 이유가 17.26%, 11.01%여서 비경제적 이유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주부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키기 곤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50.41%로 나타난 탁아모, 파출부의 구인난 때문이었으며, 가족돌보기의 어려움, 탁아비용이나 파출부 비용부담도 11.38%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주부가 취업하고자 할 때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키기 곤란한 이유도 탁아모, 파출부 구하기가 힘들어서가 55.04%, 다음으로 가족 돌보기의 어려움이 35.87%여서 취업과 관계없이 비용문제보다는 집안일과 가족 돌보기를 대신 해 줄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범주형 변수	취업(125)		비취업(757)		χ^2	
	빈도#	%	빈도#	%		
주부교육수준					5.110	
중졸	33	26.40	170	22.46		
고졸	56	44.80	420	55.48		
초대졸 이상	36	28.80	167	22.06		
가족형태					2.330	
핵가족	112	89.60	707	93.39		
확대가족	13	10.40	50	6.61		
취학전자녀					11.443***	
있음	31	24.80	308	40.69		
없음	94	75.20	449	59.31		
남편직업					1.275	
고위임원직 및 전문가	32	29.63	232	31.65		
준전문가 및 사무직	37	34.26	213	29.06		
서비스/판매/단순노무자 기타	27 12	25.00 11.11	194 94	26.47 12.82		
취업(하려는) 이유					114.592***	
경제적 이유	93	74.40	196	25.89		
비경제적 이유	32	25.60	561	74.11		
경제적 이유						
생계책임을 져야하므로	23	18.40	9	2.68		
생활이 어려워	24	19.20	26	7.74		
경제적 여유를 위해	46	36.80	161	47.92		
비경제적 이유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2	1.60	21	6.25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3	2.40	17	5.06		
집안일이 싫어서	0	0.00	2	0.60		
능력발휘를 위해	20	16.00	58	17.26		
유익한 여가를 위해	5	4.00	37	11.01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0	0.00	0	0.00		
기타	2	1.60	5	1.49		
가정/직장 양립곤란이유						1.033
탁아모, 파출부 구인난	62	50.41	224	55.04		
탁아비용, 파출부비용부담	14	11.38	37	9.09		
가족돌보기의 어려움	47	38.21	146	35.87		
연속형 변수	mean	S.D.	mean	S.D.	T value	
주부연령(세)	38.15	8.441	37.73	8.011	-0.52	
자녀수(명)	1.64	0.962	1.83	0.878	2.08*	
가계소득(만원/월)	210.35	93.047	188.98	92.594	-2.36*	
주부소득(만원/월)	93.46	50.262	36.95	48.018	-11.72***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 $p<.05$, *** $p<.001$

2.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의 태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보면, 취업주부 가계의 남편이 주부취업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82.20%, 반대하는 경우는 17.80%으로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태도도 유사하여, 시부모의 찬성은 80.58%였고, 친정부모의 찬성은 65.42%로 나타났는데, 친정부모의 찬성이 약간 낮았다.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태도를 시부모·친정부모 모두 찬성, 시부모·친정부모 중 한쪽만 찬성, 그리고 시부모·친정부모 모두 반대의 3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취업주부의 경우 양가부모가 모두 찬성하는 경우는 60.19%, 한쪽만 찬성은 26.21%, 모두 반대는 13.59%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비취업주부의 경우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보면, 남편이 주부취업을 찬성하는 경우는 23.35%, 반대하는 경우는 76.65%로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의 태도도 역시 이와 유사하였는데,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약 80%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비취업 주부의 취업에 대한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태도도 시부모·친정부모 모두 찬성, 시부모·친정부모 중 한쪽만 찬성, 그리고 시부모·친정부모 모두 반대로 구분한 결과, 양가부모 모두 반대하는 경우가 70.81%, 한쪽만 찬성하는 경우는 17.97%, 그리고 모두 찬성하는 경우는 11.23%였다.

이와 같이 취업주부는 취업에 대해 가족의 찬성이 지배적으로 많았던 반면 비취업주부는 취업에 대해 가족의 반대가 지배적으로 많았던 결과는 모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이나 시부모에 비해 친정부모의 취업에 대한 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던 것이나, 비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에 대한 친정부모의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친정부모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라기 보다는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딸의 노동부담이 큰 것을 우려한 친정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취업지위에 따른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

범주형 변수	취업(125)		비취업(757)		χ ²
	빈도#	%	빈도#	%	
남편태도					165.29***
찬성	97	82.20	176	23.25	
반대	21	17.80	581	76.65	
시부모태도					167.13***
찬성	83	80.58	152	20.08	
반대	20	19.42	605	79.92	
친정부모태도					99.19***
찬성	70	65.42	154	20.34	
반대	37	34.58	603	79.66	
시부모친정부모태도					176.83***
양가부모 모두 찬성	62	60.19	85	11.23	
양가부모 중 한쪽만 찬성	27	26.21	136	17.97	
양가부모 모두 반대	14	13.59	536	70.81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 있음.

***p<.001

3.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취학전 자녀유무, 주부소득, 주부의 취업이유, 그리고 가정/직장 양립 불가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주부의 소득이 적을수록, 주부의 취업(하려는) 이유가 비경제적 이유인 경우보다 경제적 이유인 경우, 그리고 가정/

직장 양립 불가 이유가 비용부담을 기준으로 할 때 탁아모, 파출부 구인난이 없을 때 남편이 주부취업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주부의 연령이 생활주기 단계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어지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가 찬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전 자녀가 있는 주부일수록 연령이 적으므로 앞선 세대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거나 혹은 가계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려는 경우나 저소득층에서 취업을 했을 때와 같이 주부의 소득이 적을 때

<표 4>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관련변수		
주부연령	0.0415**	0.0158
주부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0.5697*	0.2451
초대졸이상	-0.0147	0.2903
가정관련변수		
자녀수	0.2060	0.1063
가족형태	-0.5239	0.3204
취학전 자녀유무	0.6545**	0.2474
가계소득(만원)	-0.0004	0.0010
남편직업(고위임직원 및 전문가)		
준전문가 및 사무직	-0.0929	0.2200
서비스, 판매, 기능공, 단순노무자	0.2509	0.2497
기타	-0.3330	0.2876
직업관련변수		
주부소득	-0.0103***	0.0020
취업(하려는) 이유(경제적 이유)	-1.2400***	0.1987
가정/직장 양립 불가 이유(비용부담)		
탁아모·파출부 구인난	-0.5758*	0.2356
가족돌보기 곤란	-0.1664	0.2363
상수	-0.2590	0.7260
-2 Log Likelihood		212.149***

*p<.05, **p<.01, ***p<.001

남편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자녀의 양육부담의 감소와 달리 경제적 이유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년주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졸인 경우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장 낮고 결혼 후 노동퇴출이 가장 많으며, 재취업 기혼 여성의 학력구성이 고졸의 경우가 가장 높다는 한국여성개발원(1992: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탁아모, 파출부 비용의 부담을 갖는 집단을 기준

으로 할 때 탁아모, 파출부 등의 구인난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 남편이 주부취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비용보다도 자녀나 가사일을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주부취업에 대해 반대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 및 친정부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태도를 모두 찬성, 모두 반대 및 찬성 혹은 반대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모두 반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개인, 가정 그리고 취업관련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Catmod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부취업에 대한 시부모 및 친정부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모두찬성/모두반대)		(찬성+반대/모두반대)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관련변수				
주부연령	-0.0690***	0.0198	-0.1151***	0.0204
주부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0.2542	0.3253	-0.3378	0.2954
초대졸이상	0.8474*	0.3765	0.1270	0.3459
가정관련변수				
자녀수	0.0135	0.1346	-0.0181	0.1300
가족형태	0.7445*	0.3746	0.0965	0.3977
취학전 자녀유무	-1.1973***	0.3046	-0.5784*	0.2833
가계소득(만원)	0.0002	0.0013	0.0026*	0.0012
남편직업(고위임직원 및 전문가)				
준전문가 및 사무직	0.0844	0.2667	0.5597*	0.2549
서비스, 판매, 기능공, 단순노무자	-0.3659	0.3066	0.1433	0.2868
기타	0.3432	0.3529	0.5001	0.3453
직업관련변수				
주부소득	0.0122***	0.0023	0.0098***	0.0023
취업(하려는) 이유(경제적 이유)	1.0620***	0.2442	0.7936***	0.2350
가정/직장양립불가이유(비용부담)				
탁아모·파출부 구인난	0.8598**	0.2882	0.0782	0.2792
가족돌보기 곤란	0.2956	0.2947	0.2847	0.2696
상수	-0.2568	0.8902	1.7622*	0.8902
Likelihood Ratio	1263.54			

*p<.05, **p<.01, ***p<.001

우선 주부취업에 대해 시부모 및 친정부모 모두가 반대하는 경우에 비해 시부모 및 친정부모 모두가 찬성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취학전 자녀유무,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그리고 가정/직장 양립불가 이유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보다는 초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취학전 자녀가 없는 경우, 주부소득이 많을수록, 비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비용보다는 탁아모, 파출부의 구인난으로 인해 가정/직장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부모 및 친정부모 모두는 주부취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긍정적 태도가 경제적 이유와 관계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주부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로 주부의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취학전 자녀의 부담이 적고 직업에서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을 때와 관계가 있어 비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와 관계가 있었다. 이 때 확대가족의 가족형태를 하고 있거나 비용문제가 아닌 자녀를 돌보아줄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경우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주부취업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으며, 결혼 후에도 능력이 된다면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식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부모 및 친정부모가 모두 반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시부모 및 친정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찬성하고 다른 쪽이 반대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모두 찬성하는 집단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직장양립불가 이유가 미쳤던 영향력이 없어진 반면,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또한 남편직업이 고위임직원 및 전문가일 때에 비해 준전문가 및 사무직일 때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반대하기 보다는 한쪽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계소득이 많거나 남편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주부의 자아실현이나 능력발휘를 위해 찬성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생활로 인한 고생이나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부모로서의 심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

주부의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주부의 취업지위에는 주부의 취업에 대한 가족태도, 주부의 교육수준, 취학전 자녀유무,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가정/직장 양립불가 이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려는)한 경우, 가정/직장 양립불가 이유가 탁아모, 파출부 구인난이나 가족돌보기 보다는 비용부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주부소득이 적을수록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관련변수, 즉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및 가정/직장 양립불가 이유 모두 주부의 취업지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편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해석에서와 같이 주부의 취업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문제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가 있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저소득 가계의 예 뿐 아니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계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기여가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였던 선행연구결과(양승주, 1993; Eggebeen & Hawkins, 1990; Lloyd, 1982; Vickery, 1979)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Becker, 1975; Cain, 1966; Nakamura & Nakamura, 1991)와 달리 가계소득이나

〈표 6〉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 개인, 가정 및 취업관련변수의 영향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관련수		
주부연령	0.0075	0.0256
주부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1.0163*	0.4275
초대졸이상	1.0062	0.5254
가정관련변수		
자녀수	-0.1898	0.1774
가족형태	-0.1408	0.4676
취학전 자녀유무	1.7937***	0.3895
가계소득(만원)	-0.0022	0.0015
남편직업(고위임직원 및 전문가)		
준전문가 및 사무직	0.2532	0.3637
서비스, 판매, 기능공, 단순노무자	0.1990	0.4087
기타	0.4836	0.4994
취업관련변수		
주부소득	-0.0119***	0.0033
취업(하려는) 이유(경제적 이유)	-1.1885***	0.3276
가정/직장 양립 불가 이유(비용부담)		
탁아모·파출부 구인난	-2.8575***	0.4344
가족돌보기 곤란	-2.8784***	0.4203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태도변수		
남편태도	1.8229***	0.3408
시부모, 친정부모 태도(모두 반대)		
양가 부모 모두 찬성	1.2989***	0.3741
양가 부모 중 한쪽만 찬성	0.4221	0.3887
상수	5.6722	1.2467
-2 Log L	331.273***	

*p<.05, **p<.01, ***p<.001

남편직업의 직업지위는 주부의 취업지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주부의 취업지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던 변수들이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주부의 취업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편의 주부취업에 대한 태도나 시부모, 친정부모의 태도는 주부의 취업지위에 대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부취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그

리고 시부모, 친정부모가 모두 반대하기 보다는 혹은 양가 부모 중 한 쪽만 찬성하기 보다는 모든 부모가 찬성하고 있을 때 주부는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부취업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밝히고 이와 함께 주부의 개인, 가정, 취업관련변수가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이 취업과 관련해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주부의 남편과 시부모 및 친정부모는 주부취업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비취업주부 가계의 남편과 시부모 및 친정부모는 대부분 주부취업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주부의 취업지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므로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들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가족들의 태도가 부정적이므로 주부가 취업 혹은 비취업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역으로 현재 주부가 취업 또는 비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태도가 그러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부의 취업지위가 가족들의 태도를 전제로 한 선택적 결정인지의 여부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주부의 취업지위와 가족들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부가 만족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알기 위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기혼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학전 자녀유무,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및 가정/직장 양립 불가이유 등이었다. 남편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취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시부모 및 친정부모는 주부의 비경제적 이유나 능력발휘 및 소득증대의 경우에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남편에 비해 연로한 양가부모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책임과 애정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가계소득이 충분하거나 남편의 직업이 어느 수준 이상일 때 양가부모 중 한 쪽은 주부취업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였던 것은 주부의 취업에 진정한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가정내에서부터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와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주부의 취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취학전 자녀유무, 주부소득, 취업(하려는) 이유, 가정/직장 양립 불가이유와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 시부모 및 친정부모 등의 가족태도였다.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 시부모 및 친정부모 등의 가족태도는 매우 유의한 영향변수여서 관념적으로 주부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태도가 실제 주부의 취업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주부소득, 취학전 자녀의 존재, 파출부, 탁아모의 비용부담과 주부의 취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는 주부가 많이 있으며 그러므로 이용가능하며 낮은 비용부담의 탁아기관 및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고졸 주부가 다른 교육수준의 주부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었다. 또한 주부의 연령, 가계소득 및 남편직업지위가 주부의 취업지위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혼 여성의 인적 자본이 취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조건 속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고려할 때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기혼 여성의 취업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가정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 필요하며 이

를 지속적, 적극적인 사회적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매체, 언론 등의 역할은 기혼 여성의 취업욕구 증진과 함께 취업에 대한 가정에서부터의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 여성의 취업지위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좌우되기 쉬우며 특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은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의 생계비보조나 맞벌이 가계의 세제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은 기혼 여성의 취업선택에 보다 탄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탁아시설의 확충은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셋째, 기혼 여성의 인적 자본이 취업지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의 직업적 능력과 기술을 배양해주기 위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지역시설이나 기관에서 저소득층의 여성과 같은 특수 계층의 여성만이 아닌 일반 여성의 직업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장시키는 것 역시 기혼 여성의 직업적 능력과 경력을 쌓는 데 유용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의 취업은 서구와는 다른 가정적 상황과 직업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서구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1) 김수곤·김영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 분석, 서울:한국개발연구원.
 2) 김영옥(1993), 여성의 불연속 취업과 직종이동, 여성연구, 11(4), 39-61.
 3) 김태홍(1993),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11(1), 79-109.
 4) 노미혜, 김영옥(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서울:한국여성개발원.
 5) 문숙재·김순미·윤소영(1996), 취업여성의 노동 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99-112.
 6) 신영수(1991), 여성인력의 노동공급행태분석, 여성노동시장의 증장기전망과 정책과제, 39-58, 서울:한국노동연구원.
 7) 양승주(19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11(3), 133-156.
 8)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서울:한국노동연구원.
 9) 이근희·조명희(1991),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이동, 서울:한국생산성본부.
 10) 이선·윤석천(1991), 경제활동 유형결정의 형태 분석, 한국노동연구, 1(1), 55-72.
 11) 이용만·강태욱(1997),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LG경제연구원.
 12)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3) _____(1996),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4) _____(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5) 통계청(1985, 1990, 1997,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통계청.
 16) _____(1995,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통계청.
 17) Becker, G.S.(1975), *Human Capital*,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 Cain, G.G.(1966), *The Economic Analysis of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 Survey*, Ashenfelter, O & Layard, R.(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Holland:Elsevier Science Pub.,

- 693-786.
- 19) Eggebeen, D.J. & Hawkins, A.F.(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 48-67.
 - 20) Ehrenberg, R.G. & R.S. Smith(1994).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Scott, Foreman & Company.
 - 21) Goldin, C.(1983). Life-Cyc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isto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 No. 125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2) Heckman, J.J.(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 23) Felmler D.H.(1982). Women's Job Mobility Process within and between Employ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42-151.
 - 24) Gronau, R.(1973). The Effect of Children on the Housewife's Value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rch/April, 168-199.
 - 25) Killingsworth, M.R. & L. Heckman(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103-204.
 - 26) Lloyd, G.R.(1982).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N.J.: Prentice-Hall.
 - 27) Nakamura, A. & Nakamura, M.(1991). Children and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of Econometric Approaches. *Female Labor Market Behavior and Fertility*. NY: Springer Verlag.
 - 28) Oppenheimer, V.K.(1988).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Monograph Series*, No. 5, Berkely: UC-Berkeley Press.
 - 29) Osterman, P.(1980). *Getting Started: The Youth Labor Marke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30) Reskin, B. F. & H.I. Hartman.(1986). *Women's Work, Men's Work: Sex Segregation on the Job*.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31) SooKon Kim(1971). Determinant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30 to 44 Years of Age. *Ph.D. Dissertation*. USA: University of Minnesota.
 - 32) Veronica, F.N. & A.G. Barbara(1981). *Women and Work :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Y : Praeger Special Studies.
 - 33)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34) Waite, L.J.(1980). Working wives and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272-294.
 - 35) Yohalem, A.M.(1980). *Women Returning to Work*, NY: Frances Pinter Ltd.